

최근 미국의 제품안전정책 동향



배진한
안전품질정책과 연구사
02-509-7238

'09년 5월 5일, 미국은 제품안전강화를 위해 전담기관 예산 대폭증액 및 인력 증원을 발표한
- 예산, 2007년 대비 71% 증액, CPSC 위원 5명으로 증원(현재 3명)

오바마의 공약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2005년 오바마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가 납을 함유하고 있는 어린이 제품 생산을 금지토록 하는 "Lead-Free Toys Act" 제정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2007년 워터루 기자회견을 통해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CPSC의 예산을 두배로 증액시키고 필요한 인원을 증원시킬 것을 약속 하였다.

Obama Pledges Doubled Funding for Product Safety Agency

Feds say 27 children died in toy-related accidents in 2006

By Truman Lewis
ConsumerAffairs.com

November 15, 2007

Barack Obama says that if he is elected President, he'll double the funding for the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 and make sure it has the inspectors it needs to ensure that the goods sold to American consumers are safe.

At a news conference in Waterloo, Iowa, Obama said existing safety laws "aren't being enforced and many Americans, including many children, are



© 2007 by Global Access Party, Obama Regulator, Chicago
© Obama Proposed Massive Regulatory Overhaul

<워터루 기자회견 발언요약('07.12.15)>

“만약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재 CPSC의 예산을 두배로 증액시킬 것이며, 필요한 인원을 증원시킬 것이다.”

“나는 장난감 제조업자들과 부시 행정부에게 불량 수입 장난감, 특히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으로부터 미국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있어 앞장설 것을 강도 높게 요청한다. 또한, 일정량 이상의 납을 함유하고 있는 장난감을 팔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안할 것이고, 이는 또한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승인하게 될 법안이 될 것이다.”

* CPSC는 2006년에 장난감과 관련하여 최소 22명이 사망하였고, 2005년 155,400명, 2006년에는 165,200명의 어린이가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CPSC는 상해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특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또한, 오바마는 그가 제안한 상향된 제품안전법에 대한 윤곽에 대해 연설하였다.

- 미국은 일본이 식품안전 조사관들을 중국에 파견시킨 것 처럼 미국의 제품안전 조사관을 중국에 파견시킬 필요가 있다.
- 법을 지키지 않은 장난감 회사에 대한 벌금을 대폭 증액시켜야 한다.
- CPSC의 규제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야 하며, 수입 원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감시 조사관에 법적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이러한 이슈에 대해 중국과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직접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CPSIA(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로 2008년 8월 부시 행정부에서 제정되어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가 약속한 예산 및 인력증원에 대한 약속 또한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

오바마가 2009년 1월 제44대 미국대통령으로 당선 후 5월 5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당선 전 그가 약속했던 CPSC의 예산증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장 교체 및 위원 증원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며 제품안전정책 강화에 대한 그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으로부터 미 국민,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CPSC의 임무를 강조하였다. 15년 넘게 CPSC는 단지 3명의 위원으로 운영되어 왔다. 대통령은 CPSC의 정책목표 강화를 위해 이번 여름이 지나고 위원회의 위원을 5명으로 증원시킬 계획이다.

대통령 오바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인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나의 행정부 최고의 우선과제이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의해 상해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미 국민, 특히 어린이들을 반드시 보호하여야 한다. 나는 'Inez'와 'Bob'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위원회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CPSC에 위원의 수를 증원시킬 계획이며, CPSC의 새로운 리더가 CPSC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고, 미 국민이 요구하는 보다 높은 제품안전 표준을 제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기술표준 2009. 7

<2009년 5월 5일, 백악관 브리핑 요약>

제목 : CPSC 위원 증원 및 '07년 대비 71% 예산증액

대통령 오바마는 "Inez Moore Tenenbaum을 CPSC의 의장으로, Robert S. Adler를 새로운 위원으로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CPSC는 2007년 대비 71% 증액된 \$107백만불을 정부예산으로 배정받았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CPSC 예산을 두배로증액시키고자 했던 대통령의 목표에 3/4에 해당되는 예산이다.

* 2007년 CPSC 예산 \$ 62.7백만달러

대통령 오바마는 장난감과 유모차와 같은 어린이 제품을 포함하여 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심각한 상해와 죽음을